

고흥군, 우주발사체 산업 청룡처럼 힘차게 ‘비상’

공영민 고흥군수가 새해 첫날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들을 방문했다.

공영민 군수는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조성될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핵심 사업들을 점검하며 고흥군이 우주산업 중심도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내 유일의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발사체 산업의 견인을 위한 핵심인프라를 구축·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로 2031년까지 약 1조 6천억 원 내외의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지정에 이어 지난해 3월 군 최초 국가산업단지 유치로 지역 성장동력과 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해를 보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2030년까

지 약 3천800억 원을 투입해 52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 본격 추진 중에 있다.

군은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들과의 투자협약도 꾸준히 체결했다. 지난해 5월 발사체 엔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발사체 제조 시설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국토교통부 신규 국가산단 기업설명회에서 이노스페이스 등 발사체 기업 3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군에서는 국토부, 사업시행자 간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남대, 순천대와 융합캠퍼스 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최종민 기자



공영민 고흥군수가 새해 첫날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들을 방문했다. 공영민 군수는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조성될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핵심 사업들을 점검하며 고흥군이 우주산업 중심도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고흥군 제공

진도군,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쾌거

진도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문화도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색있는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선도할 13개 지자체를 지정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진도군을 포함한 13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1년간의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심사를 거쳐 2024년 말에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2027년까지 각 지자체에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군은 진도아리랑, 전통무용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속문화 마스터 클래스’ 특성화(앵커) 사업으로, 한국

을 대표하는 민속문화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오래전부터 진도는 주민들의 일상속에서 시·서·화·창을 꽂고파워 온 문화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섬이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종과 무형문화재 12종, 예능보유자 15명, 향토문화유산 36종을 보유하고 있는 민속문화의 수도이자 대한민국 유일 민속문화예술특구이다.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군은 우수한 민속문화예술과 다도해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 새로운 미래 문화예술산업을 개척한다는 전략으로 6개의 예비사업을 포함해 1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함께하는 문화도시를 건설해 군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최고의 문화도시, 진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장흥, 2023년 전국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장흥군은 ‘2023년도 자활분야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2023년도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포상계획에 따라 전국 지역자체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활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활기금 활성화, 자활사업 운영 등 4

개 분야의 성과를 평가해 총 2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장흥군은 현재 10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해 75명의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립 지원 및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통장 매칭사업으로 55명의 자산형성 지원하고 있다.

매년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지역자활센터를 견학

하고 참여자 간 연대감과 소속감 증대를 통한 화합 도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 2004년 지역자활센터를 개소해 자활사업을 통해 균로빈곤층의 자립여건 조성 및 역량 제고에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로써 장흥군은 지난 2023년 전국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과 더불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백두연 기자

완도,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3개소 선정

완도군의 금일읍 월송리, 군외면 영흥리, 약산면 관산리 등 3개 마을이 전라남도 2024년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 사업’은 귀농, 귀어, 귀촌인과 지역주민의 갈등 해결,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군은 귀촌인 유입 수와 3개 마을

주민들과 회의를 통해 마을 특색을 살려 만든 사업계획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사업 내용은 영흥마을은 해

변도로 쉼터 주변에 나무 식재와 꽃밭 조성, 관산마을은 벽화길 및 꽃길 조성, 월송마을은 적치된 쓰레기 정리 및 화단 조성으로 경관 조성과 융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약산면 관산리 최일석 이장은 “귀어, 귀농귀촌인과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마을에 활기가 돌고 사업 이뤄져 어울림 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완도군이 귀농어귀촌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보성군, 신년 현충탑 참배

보성군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보성현충탑 참배로 희망찬 군정을 시작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철우 군수, 군의회 의장과 전남도의원 및 군의원, 실과소장 등 50여 명이 함께했으며 중단 없는 보성 발전을 위한 각오와 굳은 결의를 다졌다.

보성군은 2024년 군정 핵심 5대 목표를 ▲소외 없는 복지, 군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정 ▲다 함께 잘 사는 농림축산어업 육성 ▲매력 넘치는 문화체육·관광 진흥 ▲안전한 군민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권역별 지역개발로 균형 있는 발전으로 정하고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을 보성군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철우 군수는 “나 보성 살아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보성군을 만들기 위해 끝없이 도전하고 정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같은 날 오전 시무식을 갖고 9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오롯이 군민 중심의 체감형 군정을 열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며 2024년 군정을 힘차게 시작했다.

/강종수 기자

해남군, 해넘이·해맞이 성료

갑진년 새해를 맞아 한반도의 시작, 땅끝 해남에서 4년만에 열린 땅끝 해넘이 해맞이 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대성황을 이뤘다.

해남에서는 땅끝마을을 비롯해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두륜산 오소재 등 일몰·일출 명소 곳곳에서 2023년 해님이와 2024년 해맞이 행사가 개최됐다.

행사는 지역 예술인과 안세권&팬텀프렌즈, 박완규, 제이세라 등의 축하 공연과 함께 새해맞이 카운트다운과 불꽃놀이 등이 땅끝 바다를 배경으로 화려하게 펼쳐졌다.

해남군은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고구마, 떡국 등 해남 농수산물을 활용한 온정나눔을 가졌고, 떡배에 묶는 새해 다짐쓰기, 민속놀이 등도 마련해 즐거움을 더했다.

/윤보현 기자